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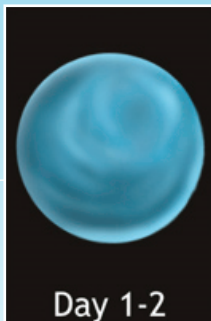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8 **08** 2016

유신론적 진화론 12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



창세기 전반부에 관하여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다. 특별히 이 두 장 사이에 창조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은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빠지지 않고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동물과 사람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은 동물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사람은 이들이 모두 창조된 후에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7, 8절)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19절)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2장에는 1장과 달리 인간을 동물들 보다 앞서 지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한 후 동물 창조를 언급했을 뿐이지 창조 순서가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

어 동사에 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는 동사(특별히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 자체가 한국어나 영어와 같이 시간성에 시제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끝났느냐 아니냐의 완결성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러므로 그 행위의 순서는 단어 자체보다는 전체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과 같이 명확한 순서가 명시된 창세기 1장에서 답을 찾아야 바른 해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대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전혀 문제점을 갖지 않았다. 그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순서는 창세기 1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 때문에 유대 학자들은 창세기 2장 19절의 동사를 ‘지으시고(formed)’가 아닌 ‘지으셨던(had formed)’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히브리어 동사는 행위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춰 시제가 정해진다.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버전은 2:19절을 ‘had formed(과거완료, 지으셨던, NIV)’로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참고로 한다면, 2장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근접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얻어진 순서로 보아 동물과 새들은 아담 이전에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며, 창세기 2장과도 조화롭다.

2. 아담과 하와의 창조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27절)라고 남녀가 마치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기록된 반면,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2장 끝 무렵에 와서야 하와의 창조가



등장한다. 이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냐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답변은 간단하다. 창세기 2장의 모든 기록은 여섯째 날 단 하루만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따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바로 히브리어 단어 ‘톨레돏(toledoth)’에 대한 이해이다. 2장 서두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generation)이니…”(4절)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내력이 바로 히브리어로 톨레돏이다. 단어와 동일한 문장은 창세기에 10번 등장한다.

-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2:4)
-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5:1)
-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6:9)
-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11:10)
-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11:27)
-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25:12)
-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25:19)
-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36:1)
-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36:9)
-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37:2)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의 내력, 계보, 족보는 모두 같은 단어 톨레돏

(generation)을 문장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기원' 또는 '기원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즉 톨레돏은 앞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이 어구는 창세기에서 각 단락의 끝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셈 등의 족보를 다시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왜 이 톨레돏이 등장하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해석들이 있으나,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가 기존에 기록되고 내려오는 기록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모아서 서술할 때 출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는 창세기 기록이 목격된 사실을 적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를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문서가설(JEDP 가설)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은 이와 같은 해석으로 배우고 있다.

창세기 2:4절과 5:1절에 있는 '내력'과 '계보'(즉, 톨레돏)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모든 피조물의 기원에 대한 개관인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사건에 대해서 모순되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1장은 모든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이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여섯째 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거기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마 19:4-5). 즉,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함께 묶어서 인용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서로 분리되거나 모순된 기록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과 다른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창세기 2장이 창조에 대한 '다른(different)'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에는 천, 지, 궁창, 바다, 육지, 태양, 별, 달, 바다생물 등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오히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직접 관련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자신의 형상인 첫 사람이 살에 텐동산의 모습, 생명나무와 선악과,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피조물들을 이름 짓는가 확인하는 장면, 모든 산 자의 어미인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 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 관점에서 창조 전체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개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은 자신의 형상에 무게를 두어 중요한 면들을 훨씬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다.

3. 식물과 초목에 대한 내용

창세기 1장은 셋째 날 식물,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는 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4, 5절)라고 기록했다. 즉 2장에는 사람이 존재 했었을 때 식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에는(밭에는)은 히브리어 'sodeh'인데, 이는 경작된 곳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문장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에서 뒷받침된다. 실제로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담이 창조된 후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순될 리 없으며, 식물 창조와 사람의 창조 그리고 그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라는 정확한 순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 그러하듯, 타협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 이들은 성경이 사실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건너 뛴다. 얼 듯 보기에 다른 것 같으면 본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가볍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후에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하여는 바로 뒤에 더 자세하게 기록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0장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각 나라대로 나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각 나라대로 나뉜 것이 어떤 이유와 방법이었는지는 11장 전반부에 따로 설명한다. 즉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 이유였으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흠으시는 것이 그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도 창세기 9장에 이어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 순서적으로 적었으나, 그들이 흠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따로 떼어서 11장에 서술한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여호수아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과정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과정과 결과가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승리를 이끌었는지는 12-14절에 따로 떼어서 기록했다.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이와 큰 차이점이 없다. 1장에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2장에 자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에게 사실을 전하시지만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때에 실수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가 없으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과학 사역을 맛보다!

저는 Sierra Vista중학교에서 영어와 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LA근교 롤랜드 이츠(Rowland Height)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인희 집사입니다. 2년전 아름다운교회 여름 특강으로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는 '노아의 홍수' 강의만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다른 강의들을 참석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만사를 제쳐 놓고 참석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저희 교회 유초등부 전도사님께서 창조과학에 대한 자료를 줄테니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6주간 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전 개인적 호기심도 있었고, 현재 아이들의 신앙에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 된다면 좀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서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기에 흔쾌히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구해진 자료는 제가 혼자 공부해서 6번의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른 멘토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던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창조과학선교회 노회성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인 개관과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를 큰 세 시간동안 초고속으로 배운 후에야 제가 얼마나 껌데

기 강의를 할 뻔했나 하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간절한 마음으로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몇 년 동안 한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을 전할 동역자를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노회성 선생님의 고백을 들으며, 쉽지 않은 길이거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지만 배우고 싶고 배운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소그룹이지만 함께 공부하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주셔서 약 7개월 함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창세기 대홍수를 주제로 Answers in Genesis에서 펴 낸 여름 성경 학교(VBS) 교재를 선택한 교회로부터 노아 홍수에 대한 강의 제의가 들어왔고, 함께 창조과학을 공부하던 저희에게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다시 공부하며, 강의안을 편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제 강의처럼 서로 연습하면서 점점 VBS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강의 전 날과 강의 당일날 아침엔 얼마나 더욱더 간절하게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기적처럼, 전하는 자는 물을 전하나 아이들에게는 포도주로 전달되는 기적이 그 시간에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비록 25분의 짧은 강의였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처음이 좋았던 것처럼 다시 회복해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나누고 예수님만이 길임을 전하는, 창조과학 사역은 성경만이 참 진리임을 전하는 사역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내주시는 곳엔 무조건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걸음마의 한 걸음을 떼게 해주셨습니다. 모든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멋진 창조주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할 때마다 첫 강의 전 무릎 꿇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짖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던 제 첫 모습, 그 자세로 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김인희(Master in Education) / 영어, 과학 교사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지난 6월 13-18일 합동신학원 교수 창조과학탐사가 있었습니다. 조병수 총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의 교수진이 참석하셨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마치고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셨습니다.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신학자들이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받은 질문에 대하여 명료한 대답이 필요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합동신학원이 창조과학 선교회와 사역을 함께 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이 시대가 진화론으로 젖어 있는 시대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위기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다짐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신론적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신앙을 결코 전수시킬 수 없다는 것도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제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켜야 할지 자신들의 자세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간증하셨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신대원 학생들은 창조과학탐사 참석하는 것을 경례화하고, 이젠만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3, 11월에는 합동신학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프로그램의 세미나를 인도할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창조과학선교회에 창조과학탐사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 창탐을 사용해주시는 분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햇볼트리니티 CEO스쿨

지난 6월 22-29일 햇볼트리니티 CEO스쿨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2년에 한 번 꼴로 참석하는데, 이번이 세번째 참석입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창탐 동안에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것과 증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나누는 순간 순간이 감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이 시대가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EM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교수

지난 6월 20-23일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담임목사 오관진)를 비롯하여 워싱턴, 일리노이, 메릴랜드 등 미국 4개주에서 모인 한인 2세들의 창조과학탐사가 김선욱 박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실제적인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더 볼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며,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KIBI 팀

지난 6월 뉴욕에서 열린 한국-이스라엘 문화 축제 “Shalom Yerushalaim”을 섬기신 KIBI 팀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김낙경 박사의 인도 가운데 6월 25-27일 2박 3일간 이루어졌으며, 참여하신 분들은 그랜드캐년을 여러 번 방문했어도 성경의 역사와 한번도 연관지어 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언론인 창조과학탐사

오는 7월 30일 - 8월 4일 엿새 동안 기독교 언론이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언론 기자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등 일반 언론의 종교부 기자도 참석합니다. 한국에 붙고 있는 타협이론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기자단의 열린 마음, 창탐 동안의 여러 상황, 특별히 인도하는 이재만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광태)에서 열린 제20기 중부창조과학학교가 지난 6월 20일 10주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17명이 수료하였으며, 성경적인 창조론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조 세계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보며 감격하였으며, 창세기의 역사와 실제 세계 속에 남겨진 증거들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참된 증인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사역

VBS 강의

지난 6월 15-17일 LA사랑의 교회(담임목사 김기섭)에서 열린 여름 성경학교(VBS)에서 노아홍수와 방주를 주제로 이틀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EM창조과학사역을 위해 훈련 중인 김인희 집사님과 경영호 집사님께서 강의를 맡아 7C의 역사와 함께 홍수 심판의 역사와 방주의 실제성을 전하며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습니다. 올 여름 Answers in Genesis에서 펴낸 “Ocean Commotion” 이란 주제의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여러 교회에서 선택하여, 노아 홍수를 참된 역사로 배우며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감사교회 1일 졸업캠프

지난 6월 24일 또감사교회(담임목사 최경욱) 초등부 5학년은 졸업예배를 즈음하여 부모님과 함께 1일 창조과학캠프를 가졌습니다. 곧 중학교에 올라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진화론적 내용이 인류의 출현 및 진화와 관련된 선사시대 역사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하고, 참된 인류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성경에 따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라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공룡 뼈를 조립하는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힘을 합쳐 공룡을 조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그 놀라운 디자인을 확인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제 8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8기 ITCM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더불어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론의 중요성 및 실재를 습득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3.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4. 참고인 3명(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주시고,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7~10명을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휘성 remainin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동물



“1963년 아이슬랜드 연안의 슈르체이섬의 화산 폭발 6개월 후, 그 섬에는 몇몇 박테리아와, 이끼류, 곤충류, 조류가 살게 되었다. 1883년 열대 태평양의 크라카타우섬의 화산 폭발 1년 후, 몇몇 풀 종류와 곤충들, 그리고 척추동물들이 섬을 장악했다. 슈르체이와 크라카타우 모두의 경우, 수백 만 종의 동물들이 그 섬들에 도달하는 데 불과 수십년 걸렸다. 모든 종들이 영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섬의 생태계는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되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적 기록의 가장 논리적 해석은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지구에서 다시 증식했다고 하는 것이다. 슈르체이 섬과 같은 사건과 현대의 동물의 이주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재증식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솔직하게 읽는다면 방주는 현대의 터키와 중앙 아시아 부근에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화석 기록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양의 죽음은 창세기 대홍수와 관련되어 가장 잘 이해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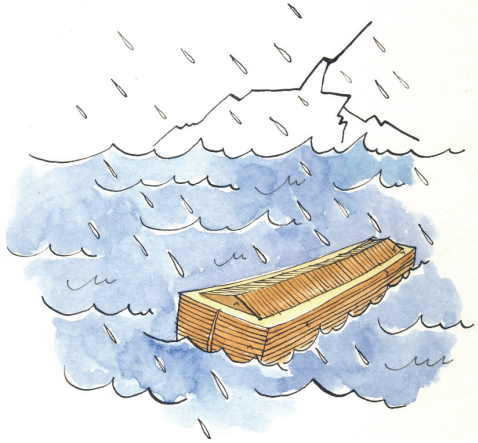
우리는 비평가들과 그들이 자주 하는 성경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실망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온갖 이상한 것들을 믿는 것에 대하여 놀라서도 안된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우리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 동물의 이주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모델들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관찰 사실과 일치하며, 성경 기록과 일맥상통한다.

발췌 : The New Answers Book 1, 141-148, '어떻게 동물들이 방주로부터 온 세계로 퍼져 나갔나?' 중에서 (전문은 <http://www.HisArk.com> 이충현 번역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탐사

간증 / 안산동산교회

5/13-19, 2016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고 배웠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으로 배워서 진화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탐사를 통해서 창조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는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은성 <송촌장로교회>

6학년 아들과 함께 창조과학탐사에 오게 된 여행!!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게 될 진화론!! 미리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미리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한 여행이었습니다. -나윤희 집사 <송촌장로교회>

나보다도
아들 손자손녀들에게도
이 창탐에 참여하게 하여 바르고
굳센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야겠
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병
철 <화성은혜의동산교회>

전반적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조국교회,
특히 교회학교의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일한 답은 'Back
to basic'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이번 창
탐을 통해 얻은 최대의 수확입니다.

-이용범 목사 <산곡제일교회>

창조과학과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
석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조
금은 제 자신의 시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창탐을 만나게 하시고
이번 창탐을 통해 제 믿음의 뿌리
를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광희 장로 <안산동산교회>

창탐은 진화론의 허구성을 정확히 지적
했고, 21년간 과학기술계에 몸담아온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방향성
을 설정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었던 이재만 선교사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황훈숙 권사
<송촌장로교회>

세상은 악해져가고 반 기독교 세력
이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공격하
는 시대에 창탐이야 말고 한국교회
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이라 확
신합니다. -박경배 목사 <송촌장
로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2017 ACT Schedule

7/30-8/4	창조과학탐사 (크리스천언론기자), 이재만
8/4-8/12	창조과학탐사 (인천온누리교회/와이즈마더링), 이재만
8/15-8/19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8/22-8/26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8/29-9/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노회), 이재만
9/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9/9-15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9/18-22	창조과학탐사 (성광교회), 이재만
9/26-10/1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10/6-1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10/21-23	창조과학세미나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이재만
10/24-29	창조과학탐사 (하나님의성회 지방회), 이재만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7-21	창조과학탐사 (군산드림교회), 이재만
2/21-27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